

4당 “‘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 협조”...한국당은 “논의 필요”



4년만에...대통령의 분향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향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헬기사격 특별법 통과도 공감...한국당만 “유보”

여야 정치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기념곡 지정과 헬기 사격을 포함한 5·18 당시 총기 발포로 인한 유혈 진압의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에서 한 발 물러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속히 기념곡 지정을 통해 5월 영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5·18 문제에 대해 결코 민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의당은 법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9년 만에 제창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장을 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

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합의 가능성은 열어줬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5·18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됐지만, 공식 기념곡 지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기념곡 지정 방안으로 담았으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헬기 사격을 포함한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를 통해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표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도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헬기사격 발표의 지휘계통, 유혈진압의 발포명령자 등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덮자고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권한대행은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로 당론을 정한 일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군 개입 의혹 등 5·18 관련 다른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진실 규명보다는 물 타기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월 정신 민주주의의 초석 다져 국민통합·지역주의 극복 계기 되길”

민주 “희망의 서곡”... 한국당 “통합 위해 노력”

정치권 반응

여야 5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제창된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당시 사망자 160여명, 부상자 5000여명,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있음을 아파게 기억하고 있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정신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나 마침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9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제창할 수 있게 됐다”며 “37년 전 광주의 슬픈 역사가 희망으로 바뀌는 서곡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화를 이끌었던 광주시민들의 용기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념식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지역분열의 소재로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폄하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오늘 기념식은 특별했다.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는 대통령의 모습은 가슴 울컥한 장면이었다”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고,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표명은 더욱 의미 깊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평범한 시민들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광주 시민과 국민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만들었다”며 “한국당은 5·18 정신을 되새기면서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최근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동철 “진상규명 이달 내 시작하자”

“오월정신 헌법 수록·전남도청 복원...3대 약속 도울 것”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5·18 3대 약속에 대해 상생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당시 헬기 사격도 국민의당이 발의해서 국회결의안이 통과됐고, 특별법도 제출된 상태”라며 “5·18 진상 규명에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따로일 수 없다”며 상생의 협조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 의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대하는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정부 여당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달 내에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 대해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감개무량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면서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과 전남도청 복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특위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 내년 6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멀리서 지켜 본 안철수...‘임 행진곡’ 함께 제창

귀빈석 대신 일반석에서 참관...“호남 지지 감사 인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8일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을 찾아 대선 이후 첫 공식 정치 일정을 소화했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기념식 참석은 비록 대선에서 참패했지만, 득표율 30%에 육박한 지지를 보내준 호남에 감사 인사를 하고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9일 광주 유세에서 “5월 18일에 다시 오겠다. 그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며 시민들과 한 약

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가 마련해둔 귀빈석 대신 시민들 틈에 섞여 기념식을 지켜봤다.

1년 전 ‘녹색 돌풍’에 휩쓸려 4·13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직후 참석한 5·18 기념식에서 당 대표석에 앉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안 전 대표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도중 정중석에서 간간히 박수가 터져 나올 때는 담담히 정면을 응시

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기념공연 무대에 가수 전인권 씨가 올라 ‘상록수’를 부르자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는 함께 부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흔들기도 했다. 또한,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비롯해 기념식이 정상화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 4·19 혁명기념관을 찾아 참배하고 호남 4·19혁명단체총연합회 회원들과 면담했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